

사회

사건 터진후 허둥지둥... 불안한 치안

지구대 강력 범죄 예방 한계... "파출소 부활" 목소리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과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 등 최근 각종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경찰 치안시스템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 있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치안 올레길 인근에 사는 김선옥(42·광산구 우산동)씨는 "우범지역이어서 방법들이 설치되고 순찰도 자주하는 것 같아 안심했는데 광산구 사건 소식을 들으니 말 자식 둔 부모로서 걱정된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파출소 체계의 경우 지구대에 비해 관할 구역이 30% 정도에 불과해 현장 출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골목 구석구석까지 경찰관이 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무여건과 예산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김문호 호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정의 권위와 범죄대응력을 앞세운 지구대체계는 주민 밀착·예방 치안 부분에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보 순찰을 통한 취약지역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책임제를 철저히 지키는 등 전문적인 치안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빛 값아라” 독촉에 선배 죽이려한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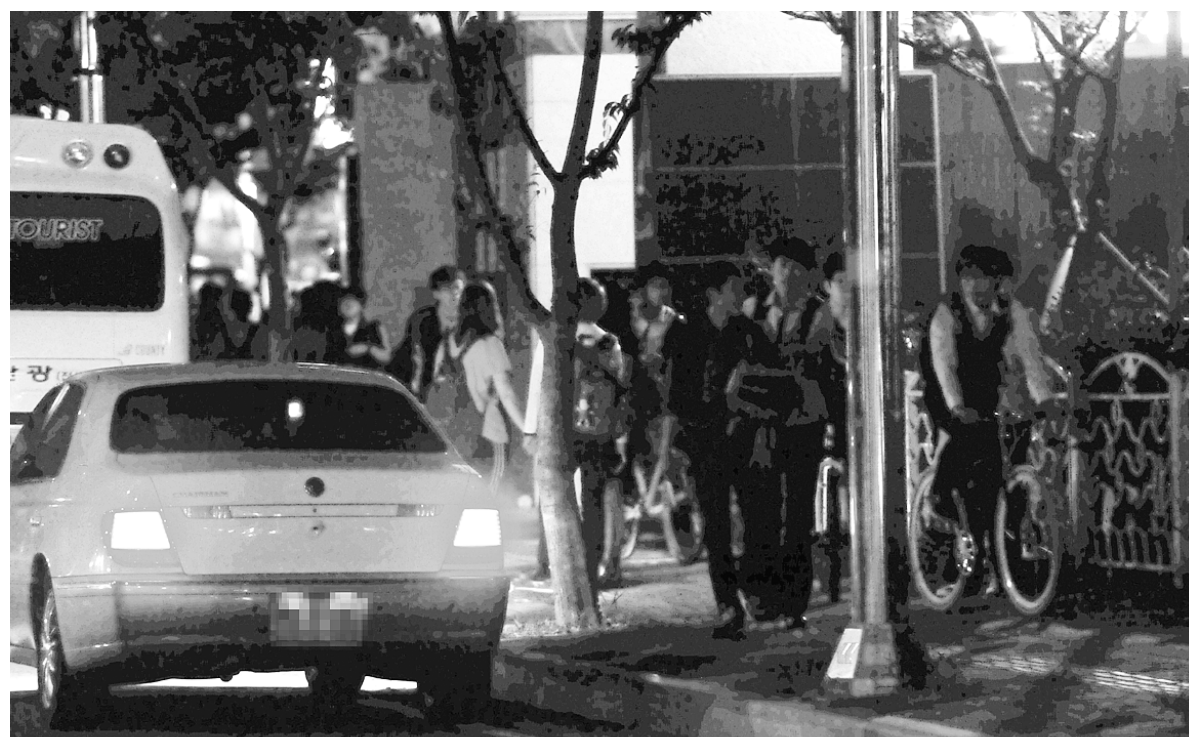
고소당하자 범행

주식투자자에 실패한 40대 의사가 채무변제를 독촉한 고등학교 선배 의사를 살해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씨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포기한 뒤 호프집을 나와 인근을 서성거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깜깜한 하룻길

광주 수원지구 여고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가 지난 12일 밤, 사건 발생지점 인근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아간 자율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귀가를 위해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7년전 성폭행 DNA로 들통

북부경찰, 40대 검거

노래방 불법 영업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아 구속된 40대 남성이 DNA 조사를 과거 성범죄 사실이 들통났다.

광주북부경찰은 12일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한 박모(48)씨를 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박씨는 지난 2005년 5월11일 새벽 4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한 주점에서 여주인 A(당시 43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광주시 북구 한 지역에서 노래방 업주 등을 협박해 9차례에 걸쳐 14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돼 현재 광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박씨의 구강세포를 채취, 여죄를 캐던 중 7년 전 성폭행 사건 당시 A씨의 몸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것을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4번 구속 3번 무죄’ 박주선 운명은?

27일 항소심 선고 촉구

광주시 동구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7일로 예정되면서 결과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환)는 지난 11일 오후 3시01분 법정에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별인 선거운동의 이익이 박 의원에 돌아갔다는 점에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의 변호인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이유로 경선이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라며 "박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국회의원을 그만 둘 생각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구속돼 있으면서 조선왕조의 역모사건을 많이 생각하게 됐다"며 "역모가 아닌데 고문을 하고 괴롭히까지 삼작을 면하면서 결국 아무런 죄가 없이도 이렇게 벌을 받는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사건이 역모사건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산 성폭행범 택시 도주 가능성

경찰, 15명 DNA 감적 의뢰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6일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해당 시간

대 광산구 지역에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태운 택시 기사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또 여고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유력한 용의자가 범행 직후 모습이 찍힌 CCTV 장면을 추가 확보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걸고 이 용의자를 공

개수배하는 한편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성범죄 전력자 및 우범자, 제보에 따른 남성 등 모두 15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6일 밤 1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귀가 중이던 A(16)양을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20대 중반에 키는 175cm 안팎이며, 범행 당시 검은색 상·하의와 파란색 계통의 모자,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급발진 의심 사고 50대 女 중상

지난 11일 밤 10시21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대형마트 3층 주차장에서 배모(55)씨가 몰던 여타인 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쳤다.

이 사고로 배씨와 보조석에 타고 있던 배씨의 부인(52)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배씨의 부인은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집으로 가려는데, 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일으키며 30m 앞 벽으로 돌진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4세 남아 블라인드 줄 질식사

11일 오후 5시 15분께 여수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A(4)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군은 목 부위에서 줄에 걸린 흔적이 발견됐으며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군이 방 안에서 놀다 블라인드 줄에 감겨 질식사 한 것이 아님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여학생 성추행 전 총학생회장 벌금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최근 술에 취한 같은 학교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조선대 전 총학생회장 이모(27)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

고 판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 성추행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적극 거부한 점 등으로 미루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

○이씨는 조선대 총학생회장이던 지난 2011년 11월6일 새벽 광주시 서구 한 술집에서 A(여·21)씨 등과 술을 마신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Card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hotel deals, and special offers. Includes sections for Lotte Jeju, Lotte Hotels, Lotte Card benefits, and various travel packag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stinations.